



2018년 7월 29일(제886호) 연중 제17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시.”

어렸을 때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기 위해 사진관에 갔다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설렸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는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혹시나 눈을 감지는 않았는지, 표정이 이상하게 찍히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되면서 인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화된 사진을 받아 잘 나온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혹시나 잘 못 나온 사진도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뭐든지 빨리빨리 되는 시대라서 기다릴 때의 설렘과 결과가 나왔을 때의 기쁨과 행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라진 시대 속에서도 기다림의 설렘, 그리고 결과를 보았을 때의 기쁨을 주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택배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선택해서 산 물건이지만, 물건이 도착하기 전까지 설렘과 물건을 받고 상자를 뜯었을 때의 기쁨은 마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아마도 기다릴 때의 설렘과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바로 그것을 위해 준비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인화해주는 사진사가 있었기에, 택배를 전달해주는 배달부들이 있었기에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설레게 되며, 결과를 얻었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 노력을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루함도 설렘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에서는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의 배를 불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1독서에서는 보리 빵 스무 개와 햇곡식 이삭으로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배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는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바알 살리사에서 온 어떤 사람이 그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

부를 수 있었고, 복음에서는 어떤 아이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름 모를 한 사람이,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것들에 대해 하느님께서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 하느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많은 사람이 희생과 은혜를 통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름 모를 한 사람에 의해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아무 힘도 보잘 것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천하고 보잘 것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은 것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혜가 전달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작고 보잘것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전환성(세례지요한) 신부
중령 103위 성인(육군 37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2열왕 4,42-44
- 회 탑 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시.
- 제 2 독 시** 에페 4,1-6
- 복음 반 호 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복 음** 요한 6,1-15
- 영 성 제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성인명: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金耆良 Felix Peter)

신분: 중인, 성인, 순교자

활동연도: 1816-1867년

김기량(金耆良) 펠릭스 베드로는 1816년 제주 섬 함덕리(현,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은 그를 ‘김 선달’이라고 불렀다. 그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1857년 2월 18일(음력 1월 24일), 동료들과 함께 무역하려고 바다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그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3월 26일에 김 펠릭스 베드로는 중국의 광둥 해역에서 영국 배에 구조되었는데, 동료들은 이미 탈진하여 죽은 상태였다. 이후 김 펠릭스 베드로는 홍콩의 파리 외방 전교회 극동 대표부로 보내졌으며, 이곳에서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 신학생 이 바울리노를 만나게 되었다.

이 바울리노는 김 펠릭스 베드로를 만난 다음 날부터 그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김 펠릭스 베드로는 여기에 마음이 쏠려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였고, 그의 신앙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깊어졌다. 그런 다음 그는 1857년 5월 31일에 홍콩의 부대표인 루세이유(J. J. Rousseille)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김 펠릭스 베드로는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기 전 1858년 3~4월에 페롱(S. Feron, 權) 신부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이때 신부들은 그가 ‘제주의 사도’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로 그는 가족과 그의 사공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데 열중하였으며, 이듬해 봄에는 육지로 나와 교구장인 성 베르너(S. Berneux, 張敬一) 주교를 만나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김 펠릭스 베드로는 이후로도 육지를 오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865년에는 두 번째로 난파하여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프티장(Petitjean) 신부를 만나고 다음 해에 귀국하였다. 이후 그는 육지로 다시 나와 리델(F. Ridel) 신부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공 2명을 세례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주의 복음화를 위한 김 펠릭스 베드로의 노력은 1866년의 병인박해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박해가 일어난 직후, 그는 여느 때처럼 무역하러 경남 통영으로 나갔다가 그곳의 계섬(현,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체포되었다.

이윽고 통영 관아로 끌려간 김 펠릭스 베드로는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굳게 신앙을 지켰다. 더욱이 옥에 갇혀서는 함께 있던 교우들에게 “나는 순교를 각오하였으니, 그대들도 마음을 변치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권면하였다. 통영 관장은 대구 감사에게 ‘김 펠릭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배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감사는 ‘그들을 때려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김 펠릭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다시 혹독한 매질을 당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의 목숨이 붙어 있자, 관장은 그들 모두를 옥으로 옮겨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가 1867년 1월(음력 1866년 12월)로, 당시 김 펠릭스 베드로의 나이는 51세였다. 이때 관장은 특별히 그의 가슴 위에 대못을 박아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행복했습니다.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찾아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도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
행복했습니다.



성화이야기

성스테피노 성당



이 모습은 성당 뒤편의 오르간을 바라본 모습으로, 본 성당 중앙 부분 양쪽 옆면의 회랑에까지 공간과 빛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오르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오르간 중의 하나로 꼽힌다.

오른쪽 사진은 성당 장식의 세부 모습으로, 마치 나무가 깎아져 있고 나뭇가지가 그대로 연결된 듯한 자연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왔음을 볼 수 있으며, 조각과 회화가 혼재되어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열악한 현실과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혼란을 겪던 일반 대중에게 이 성당은, 미사 예식 속에서 미사의 축복과 함께 공중으로 부양하는 것만 같은 극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천상의 공간과도 같은 곳이었다. 비단 이 성당뿐 아니라 바바리아 지방은 지역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성당들이 가득한,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보석 같은 곳이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7주일 : 창성 최재환 신부

◆ 교구장 동정

- Knights of Columbus 연례모임
 때·곳: 7. 30(월)~8. 11(토), 미국

◆ 군중교구 '잇숨 생기디'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